

크레아젠, 일본에서 세포치료제 상용화

바이오기업 크레아젠은 최근 일본에서 열린 수지상세포의 항암치료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고 일본 Ehime 대학병원과 간암에 대한 세포치료제의 일본시장 상용화를 추진기로 했다고 3월31일 발표했다.

크레아젠은 암치료제 시장이 국내보다 무려 10배 큰 일본에서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제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할 수 있어 상용화가 쉽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3-6개월 이후 일본 시장에서 상용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레아젠은 “신장암 및 전립선암 세포치료제 등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높아 간암과 신장암, 전립선암의 일본 동시 상용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학술대회에는 일본의 NHK, 마이니치신문 등 10여개 현지 언론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4/01>